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2018 단기 선교 안내 (금일 단기선교팀 기도와 훈련 모임이 있습니다)  
기간 : 2018 년 2 월 19 일 - 23 일 (월 - 금)  
장소 : Honduras, Las Flores (최 문재 선교사)  
사역 : 의료, 심방, 전도, 어린이  
선교팀원 : 이민영, 김동수, 김종한, 김현정, 박인주, 서영수, 서현숙, 석동훈,  
신미라, 이승택, 이영순, 최정민, 한주루, Edwin 김,  
기다엘, 기유빈, 나유빈, Eunice 안, Chris 안, Cameron Warner
- 기도 제목
  1. 모우아까(Moacca) 마을을 방문, 기도, 진료, 사역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도록
  2. 모우아까 주민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3. 최 문재 선교사님과 세광교회가 서로 도전과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4. 팀원들을 위해 : 한 마음 되도록; 건강과 안전; 새 힘과 비전
- 공동의회 공고 : 2018 년 1 월 28 일(주) 예배후 본당  
안건 : 2017 년 결산 및 2018 년 예산, 감사 선출
- 교육부 교역자와 학부모 간담회 : 1/21(주) 2:00-2:20.  
교육부 전체와 각 부서의 올해 사역 목표와 계획을 알려드리는 자리입니다.
- PCA 한인동북노회 뉴욕시찰회 연합제직세미나 : 1/28(주) 오후 5 시.  
뉴하트선교교회 (정민철 목사). 강사: 박동건 목사. 주제: 코칭 공동체 훈련 (별지 참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예배안내

- 주일예배 :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유년부) / 2 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 구역별

2018 년 1 월 안내 : 하 영미 집사  
다음 주 기도 : 오 영숙 집사 / 시편 111 편  
이번 주 친교 : 김 은영 집사 / 강 승연 자매  
다음 주 친교 : 노 미라 집사 / 송 은주 집사

담임목사 :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 **Edwin Kim**  
유년부 간사 : **안정자** / 지휘자 : **임대영**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예배**

<오전 10 시> 인도자: **Edwin Kim** 전도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강승연 자매  
 봉헌찬송 -----“좋은신 하나님”-----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막(Mark)1:9-15; 골(Col)3:1-4 ----- 인도자  
 설교 (Sermon) ----- “주님의 일(2):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다함께

**주일예배**

<오후 12 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8 장 (통 9 장) 1 절-----다함께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Hymn)-----21 장(통 21 장) “다 찬양하여라”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시편 62:5-12 ----- 안상민 집사  
 찬양(Choir)----- “사랑”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막(Mark)1:9-15; 골(Col)3:1-4 ----- 인도자  
 설교(Sermon) ----- “주님의 일(2):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 이민영 목사  
 \* 찬송(Hymn)----- 246 장(통 221 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주님의 일(1): 가르치시며 (마 9:35-38; 사 50:4)**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께서 하신 일 세 가지(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 9:35; 4:23)를 살펴보고 그 은혜를 얻고 교회의 사명을 생각해보려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자신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지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는 것도 무슨 천국 가는 비결이나 복 받는 묘책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 가르침은 사랑과 진리의 가르침이었습니다(출 34:6; 요 1:14 참조).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과 이유가 사랑입니다. 가르침 자체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을 애써 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1:18),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누리고 살도록 가르치십니다. 그 마음을 알고 배웁시다.

귀하게 여겨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써먹기 위해 필요한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고 온전하고 능력있게 되라고 가르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온전해지라고(마 5:48) 가르칩니다. 필요한 것만 빼먹고 돌아서지 마시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사랑을 알고 변할 때까지 배웁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갑시다.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스승은 제자들의 상태를 알고 필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자기 아는 것만 나열하지 않고 제자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약한 것을 돕고 모르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지적하고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정직합시다. 아는 체 하지 말고, 아는 것만 확인하며 기분좋아라 하지 말고 정직하게 배웁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한 진리입니다. 현실과 일치하는 말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룹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성경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또한 진실합니다. 속 마음과 말이 같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시고 용서받기 원하시며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순전한 말씀이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배울만 합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행하십니다. 말할 때 마음과 지킬 때 마음이 다른 게 사람인데(시 12:2 “두 마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지킬 작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되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십자가 고통과 희생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을 만 합니다. 괜히 들었다 낭패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자리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나아왔다고” 반복해 말해줍니다(5:1; 13:1-2; 24:3 등). 우리 심령과 공동체에 앉으셔야 합니다. 모셔야 합니다. 계신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가르침도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앞으로 걷는 어미 게가 아무리 똑바로 걸으라고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 거짓과 위선만 가르칠 뿐입니다.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그 상태를 알고 필요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들어야 합니다. 학자의 혀로 위로하려면 학생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사 50:4). 예수께서도 매일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침을 뱉어도 사랑으로 가르치셨고 진실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사 50:5-6).